

李邦翼의 〈漂海歌〉에 나타난 표류 체험의 양상과 바다의 표상적 의미*

백순철**

|| 차례 ||

1. 서론
2. 자료의 실상 및 관계
3. 표류 체험의 양상과 의미
 - 1) 표해 체험, 표류인으로서의 자기 발견
 - 2) 이국 체험, 국제인으로서의 자기 변화
4. <표해가>와 바다의 표상적 의미
5. 결론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표해가>의 자료 현황을 확인하고 그 연구사적 의의를 재점검하였으며, 작품 속에 나타난 작자의 의식지향을 크게 표류 체험과 이국 체험의 양상으로 나누어 변화과정을 드러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첫째, 한글본 가사 이본 4종과 역사서나 문집의 한문기록들의 차이점을 통해 자료들간의 상호보완적 성격을 확인하였다. 특히 가장 일정이 상세한 『日省錄』을 토대로 한문기록인 <書李邦翼事>와 가사 <표해가>를 대조해 보면서 역사, 지리, 문학 정보를 담은 문화적 텍스트로서 상호

* 본고는 2012년 8월 16~17일 목포대학교에서 열린 2012 한국고전연구학회·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공동학술대회의 ‘한국고전문학과 바다’ 주제 발표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학술대회에서 토론을 맡아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목포대 최성환 선생님과 많은 조언을 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 대구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보완적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 활용의 긴요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작품 내부에서 나타나는 작자 의식을 ‘표해 체험, 표류인으로서의 자기 발견’과 ‘이국 체험, 국제인으로서의 자기 변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전자는 비계획적이고 비주도적인 표해 체험을 통해 숨겨진 자아를 발견하고 자기 성찰을 이끌어내는 작자의식의 면모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후자는 안정적인 고국 송환이 확보된 이후 중국이라는 공간에 대한 이국체험의 양상과 함께 중국이 바라보는 조선(조선인)의 위상을 확인하면서 나타나는 자기 인식의 변화를 읽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셋째, 작품의 문화사적 의미와 관련하여 주요 공간인 바다의 표상적 의미가 어떠한 질서 속에서 구축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바다 관련 자료의 표상적 의미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았다. <표해가>를 통해 표류 문학이 갖는 문학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역사, 지리 등의 인문 정보를 담은 텍스트로서의 문화사적 의미를 다시금 재확인하고 풍부하고 다각적인 해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 표해가, 표류 체험, 표해 체험, 표류인, 이국 체험, 국제인, 바다, 표상적 의미

1. 서론

‘표해가’ 류의 작품들¹⁾은 공식적 사행의 경로가 아닌 ‘표류’라는 돌발적 사건을 통해 경험한 국외 체험을 작품화한 것이다. 이들은 ‘표류 체험’과 ‘견문 체험’을 내용의 두 축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즉 작품의 표제가 내세우고 있는 것은 작자 개인의 님선 재난 체험인데, 실제 내용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위험에서 벗어난 이후의 외국 견문 체험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는 텍스트의 생산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즉 작자들은 고국으로 무사히 송환된 이후 이들의 국외 체험에 대해 관심이 깊은

1) 최부(1454~1504)의 표해록, 이지향(영조조)의 <표주록>, 장한철(1744~?)의 <표해록>, 이방익(1757~?)의 <표해가>, 문순득(1777~1847)의 <표해시말>, 최두환(1779~1821)의 <승차록> 등.

제왕이나 국내인들의 요구에 의해 이 텍스트들을 생산하게 된다. 물론 작가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에 직면하여 생사의 기로에 섰던 조난 체험이 가장 인상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일 것이다.²⁾ 하지만 독자들은 그보다 그 긴 기간 동안의 국외 체험에서 경험한 이국의 풍물이나 문화에 대해 소상하게 알고 싶은 욕구가 더 컸으리라 생각된다. 텍스트의 내용 구성에서 후자 쪽의 비중이 더 커지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리라 짐작된다. 즉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좀 더 소구력을 갖는 텍스트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작가 개인의 주관적 감흥이나 정서를 강조하기보다는 구체적 체험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리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인지 <표해가>류 작품들의 연구에 있어서 주로 초점은 국외 체험의 견문 내용에 맞춰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³⁾

지금까지의 표해가 연구를 돌이켜 볼 때 주요한 자료의 발굴 및 번역과 작품론적 연구에서는 상당한 성취에 도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 최근

2) “<漂海歌>에 나타난 기행과 체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앞 단락은 제주 앞바다에서 표류하여 중국 팽호도에 표착하기까지의 15일간의 표류 체험이며, 뒤의 단락은 팽호도에 도착하여 의주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행과 견문으로 작품의 4/5를 차지한다. 그러나 의미 있는 주인공의 행동이 객관적 묘사로 박진감 있게 그려진 부분은 앞 단락이다.” (성무경, 『탐라거인 이방익의 <표해가>에 대한 연구』, 『탐라문화』 12,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2, 8면).

3) 정재호, 『이방익의 <표해가>』, 『한국 가사문학의 이해』, 고려대출판부, 1998, 413~432면. / 서인석, 『최부의 <표해록>과 사림과 관료의 중국 체험』, 『한국문화연구』 10,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6. / 김윤희, 『<표해가>의 형상화 양상과 문학사적 의의』, 『고전문학연구』 34, 한국고전문학회, 2008, 35~60면.

4) 이용기 편, 정재호·김홍규·전정옥 주해, 『주해 악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2. / 조규익·최영호, 『해양문학을 찾아서』, 집문당, 1994. / 강전섭, 『이방익의 <표해가>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20, 한국언어문학회, 1981, 97~113면. / 김문식, 『<서이방익사>에 나타난 박지원의 지리고증』, 『한국실학연구』 15, 한국실학회, 2008, 193~225면. / 성무경, 『탐라거인 이방익의 <표해가>에 대한 연구』, 『탐라문화』 12,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2, 1~15면. / 전상욱, 『이방익 표류 사실에 대한 새로운 기록-서강대 소장 한글 <표해록>과 관련 자료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59,

에는 표류인과 표류 체험이라는 문화사적 주제를 다룬 연구가 역사학계에 서 제출되고 있다. 조선시대 표류기록의 양상과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⁵⁾ 표류를 통해 획득한 새로운 경험의 특징과 주변 지식인들에게 미친 영향을 검토한 연구⁶⁾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럼에도 자료의 활용 측면이나 텍스트의 해석적 접근에 있어서는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확인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자료의 실상이나 관계를 대조하는 작업, 표류 체험과 표류인에 대한 이해⁷⁾를 통해 작자의식의 변화를 읽어내는 방법, 작품 속 주요 공간인 바다의 표상적 의미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구축되는지를 살펴보는 작업 등을 통해 표해가(록)류 연구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주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2. 자료의 실상 및 관계

李邦翼의<표해가>와 관련된 기록들은 한글본 가사 이본 4종을 포함하여 관련 한문 기록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자료가 전한다. 이 장에서는 그간의 연구들을 통하여 소개된 자료들의 현황을 소개하고 그 자료들 간의 관계와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어국문학회, 2011, 121~146면. / 최강현, 「표해가의 지은이를 살핌」, 『어문논집』 23, 민족어문학회, 1982, 67~74면. / 최두식, 「표해기록의 가사화 과정」, 『동양예학』 7, 동양예학회, 2002, 157~178면.

5) 고석규, 「조선시기 표류 경험의 기록과 활용」, 『도서문화』 31,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2008, 3~32면.

6) 최성환, 「19세기초 문순득의 표류 경험과 그 영향」, 『지방사와 지방문화』 13권 1호, 역사문화학회, 2010, 253~305면.

7) 이복규, 「최부의 <표해록>에 대한 두 가지 의문」, 『고시가연구』 22,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① 한글본 가사 이본

1. <漂海歌-넛글 새맛>, 『青春』창간호, 1914.10.
2. <漂海歌>, 『雅樂部歌集』 1책, 서울대 가람문고본.
3. <47. 漂海歌(표해 · 이가) 李邦翼 正祖時人>, 이용기 편, 『樂府 上』, 고려대 소장.
4. 『표해 · 이록 단』, 서강대 소장, 순한글 필사본 1책.⁸⁾

② 관련 한문 기록

1. 『承政院日記』(정조21(1797), 丁巳, 윤6월 21일조)
2. 『正祖實錄』(정조20(1796), 9월 21일)
3. <義州府尹 沈晉賢以濟州漂人李邦翼等從大國出來馳啓>, 『日省錄』(정조21(1797), 윤6월 4일)⁹⁾
4. 박지원, <書李邦翼事>, 『燕巖集』 권6, 별집.
5. 沙汀洞主, <李邦仁漂海錄>, 두루말이 한문필사본.¹⁰⁾

위 자료들 중 ①에 해당하는 4종의 가사 이본 중 1~3은 대동소이하다. 대체로 ①-1의 활자본이 가장 선본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①-2~3은 그보다 뒤에 필사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비해 새로 발견된 4의 자료는 분량이 크게 확장되어 있는데, 전상욱에 의하면 서강대본 <표해가>는 전체 장수는 52장이고, 매면 9행, 매행 16자 내외로 총 16000자 분량에 해당하여 다른 이본에 비해 분량이 4배 가까이 많다고 한다.¹¹⁾ 전체적으로 다른 이본에 비해 내용이 더욱 부연되어 있거나 새로운 내용들이 풍성하게 들어가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朴趾源이 <書李邦翼事>에서 지리 고증을 통해 李邦翼의 악양루 · 동정호 탐승 가능성을 부정했던 것이 여기서는 그

8) 전상욱, 앞의 논문에서 처음 소개함. 서강대본 <표해가>라 부르기로 한다.

9) 김문식의 논문에서 전문이 번역 소개되어 있다.

10) 최강현, 앞의 논문에서 자료의 전문이 소개되었다.

11) 전상욱, 앞의 논문.

노정이 다시 바로 잡혀 있음으로 인해 다시 그 개연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 전상옥은 서강대본의 경우는 기억에 의존하기보다는 [2]-3의 내용에서 이방익의 소지품으로 거론된 ‘諺書日記 3권’ 같은 자료를 저본으로 참조하여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1]-1~3까지의 이본과 [1]-4는 그 형성 경위가 다른 이본이다. 전자는 기억과 구술에 의해 이루어진 창작의 특성상 축약이나 생략, 訛誤의 가능성이 있되, 좀 더 생생하고 인상적인 내용으로 배치된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후자는 선행하는 기록본을 토대로 하여 가필과 수정을 통해 좀 더 확장된 이본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함께 살펴볼 대목은 [2]-5의 자료가 형성된 경위이다.

[1] 오른쪽은 이방익의 표해록이다. 처음엔 한글로 세상에 전해졌는데 화잡 정상사가 한문으로 번역하였으니 화잡의 뜻은 무엇을 취하려 한 것인가? 내가 이 표해록을 보니 애뜻하여 차마 놓지 못하고 옷이 눈물로 젖었다. 박자를 맞추다가 크게 한숨 쉬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를 내가 만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한다면 능히 뺨을 적시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 이에 대개 진실로 기록을 한문으로 번역한 뜻이다. 사정동주 쓰다.¹²⁾

위 기록을 보면 주인공의 이름이 제목에서는 李邦仁으로, 내용에서는 李邦億으로 오기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한글본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대목은 한문본 표해록이 한글본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내용을 보면 가사 <표해가>와는 현저히 달라서 저본은 가사가 아닌 한글 산문기록으로 보

12) 右李邦億漂海錄 而始以諺傳于世 花岑鄭上舍眞以讎之 花岑之意 奚取焉 余觀是錄 至眷眷不忍別及持衣涕泣處 未嘗不擊節而太息也 此使乎躬逢之人見是 則能不泚其頰乎 余於是盖信讎錄之意也 沙汀洞主書. (<李邦仁漂海錄>, 최강현, 앞의 논문 참조).

이는데, 그 한역의 동기는 한글본이 주는 감동과 울림을 한문 향유자에게도 전달하고 싶어서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번역의 대상이 곧 가사 <표해가>는 아니지만 그 사연과 내용은 가사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작품을 읽으면서 눈물도 짓다가 흥에 취해 박자 맞추다가 한숨도 쉬는 장면은 ‘역동적인 고난 과정의 묘사와 긴장감, 이후에 극대화되는 흥취의 현장 등이 생생하게 재현되고 있다’¹³⁾는 해석에 더욱 타당성을 부여해준다고 할 수 있다.

②의 한문기록들은 한글본 가사의 불완전한 정보와 기록성¹⁴⁾을 보완해 주는데, 대체로 공적인 임무와 관련되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사 <표해가>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①과 ②의 자료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이들의 대조를 통해 텍스트 해석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표해가>관련 기록을 대조해 보면 여정과 그 체험의 내용에 있어서 텍스트 간에 다소의 차이가 발견된다. 편의를 위해 아래에 그 내용을 표로 요약 정리해 보았다. 가장 일정이 상세하게 제시된 『일성록』을 토대로 하여 가사 <漂海歌>와 박지원의 <書李邦翼事>기록을 함께 대조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13) 김윤희, 앞의 논문, 56면.

14) 상께서 특별히 방익을 불러 보고 지나온 산천과 풍속을 하문하면서 사관(史官)에게 명하여 그 일을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배를 같이 탄 8명 가운데 방익만이 문자를 알기는 하였으나, 겨우 노정(路程)만을 기록해 놓았을 뿐이요, 또 기억을 더듬어 입으로 아뢴 것도 왕왕 차서(次序)를 잃었습니다.(上特召見邦翼. 問以所經山川風俗. 命史官錄其事. 同舟八人. 惟邦翼曉文字. 然僅記程途. 又追憶口奏. 往往失次. 臣趾源以沔川郡守. 陞辭入侍于熙政堂)” (朴趾源, <書李邦翼事>, 『燕巖集』 권6, 別集).

〔표1〕 표류 일정에 따른 여정과 표류 체험의 내용 비교¹⁵⁾

일정	여정	①-3. 가사 〈표해가〉	②-3. 『日省錄』	②-4. 〈書李邦翼事〉
1796.9.20.	濟州	표류 시작 * 큰 비로 기갈 해소	표류 시작	1차 奏(표류과정과 구조 이후 육지 풍경과 사람들의 태도를 자세히 묘사)
1796.9.25.	바다	* 큰 고기로 허기 해소	큰 섬 3개를 발견	
1796.9.26.	바다		큰비로 기갈 해소	
1796.10.4.	福建省 澎湖府	몸짓으로 기갈과 허기를 호소하여 해결.	큰 고기로 허기 해소 구조되어 육지에 도착. 복건성 팽호부임을 필담을 통해 확인.	2차 奏(관아와 마궁대인의 모습 상세 묘사. 표류의 사정을 밝힘)
1796.10.5.	福建省 澎湖府	*필담을 통해 복건성 팽호부임을 확인. 마궁대인을 만나 출신을 밝힘.	마궁대인을 만나 자신의 출신을 밝힘(제주는 유구국에서 꺼리는 지라 조선국 전주인이라 함)	
1796.10.6.	澎湖分府	팽호부 성내의 풍경 관찰.	본국 송환 요청	
1796.10.26.			관아에서 돈 제공, 마궁 앞바다를 떠남	3차 奏(대만부 도착, 도시 풍경을 묘사)
1796.10.28.	臺灣府	* 5일만에 대만부 도착	대만부 도착	
1796.10.29.		도시의 문물과 자연 경관을 묘사.	성내에 들어감. 쌀과 반찬값을 제공 받음	4차 奏(대만을 떠나 하문에 도착한 과정을 서술. 자양서원에서 주자의 상에 절하자 유생들이 반긴 사연을 서술. 동안현 천주부, 홍화부를 거침)
1796.11.14.		* 정사(1797) 1월 4일에 하문부에 도착. 자양서원에서 주자상에 절하자 유생들이 반김 * 27일 복건으로 출발	총병이 아문의 3대인에게 데려감. 물품과 돈을 제공받음	
1796.12.2.		하여 천취부(천주부), 鳳城縣을 지나 범해사를 구경.(날짜에 착오가 있음)	하문으로 가기 위해 대만부를 떠남	
1796.12.7.	바다		역풍을 만남	
1796.12.10.	澎湖府		마궁 앞바다에 머물다 아문에서 각각 돈 10관을 받음	
1796.12.18.	바다		하문을 향해 떠남	

1796.12.21.	(복건성) 廈門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목가리개를 팔	
1796.12.23.	東安縣 惠安縣		관아에서 제공한 가마를 타고 동안현 해안현을 지남	
1796.12.27.	泉州府		관아에서 은자 각1냥을 제공	
1796.12.30.	興化府		홍화부에서 새해를 맞음	
1797.1.2.	福清閩縣		복청민현을 지남	
1797.1.5.	福州城 法海寺		관아에서 돈을 제공. 66일을 머뭇.	5차 奏(조5일 복주성 법해사에 들러 고국인을 반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서술)
1797.3.12.	(절강성) 杭州 大善寺, (강소성) 蘇州 寒山寺, (안휘성) 楊州 金山寺, 楊州 江渡縣	* 水軍府에서 상여 행차 목적. 南鄭縣 太清館, 建寧府 建安縣, 寶華寺, 天界府, 益州府 進德縣에서 엄자릉의 유적 구경. 荊州府에서 잔치 목적, 전당수에서 조선인 호송기를 보고 기뻐 즐김, 악양루, 동정호 등을 지남. * 19일에 배를 출발하여 虎邱砥柱 지나서 蘇州府 寒山寺, 금산사, 양주부 강동현을 지남	위관을 정해 황교강으로 배를 타고 북경으로 출발하며 항주, 소주, 양주를 지남. 양주 강도현에서 향1부를 상으로 줌	6차 奏(관원의 호송으로 서양령, 보화사, 절강성 선하령을 지남) 7차 奏(강남성 강산현에서 배를 탐) 8차 奏(용유현 엄주 엄자릉 유적, 항주 대선사에서 선유놀이를 목격함) 9차 奏(소주 한산사, 고소대, 악양루, 호구사를 지남) 10차 奏(금산사의 풍경)
1797.4.18.	(강소성) 高郵		고우에서 육지에 내림	11차 奏(배에서 내려 수레를 뺐는데 풍속이 비루하고 인민이 검소하여 일체 기록하지 않음)
1797.4.19.	寶應縣		보응현에 도착	
1797.4.23.	(산둥성) 郯城縣	* 5월 들어 강남을 이별하고 산둥성 들어옴	담성현을 지남	
1797.5.11.	(하북성) 北京	* 5월 3일 연경(하북성)에 다다름 * (하북성)산해관을 나와 (요녕성) 심양으로	북경에 도착하여 조선관에 머뭇.	
1797.6.1.		* 6월 4일 의주부로 옴. 부윤 沈知縣(沈晉		

1797.6.2.		賢)의 위문. * 임금을 뵈고 사연을 아뢰.		
-----------	--	--------------------------------	--	--

우선 세 자료 중 표류 일정이나 체험의 구체성에 있어서는 義州府尹 沈晉賢이 올린 『日省錄』의 <義州府尹沈晉賢以濟州漂人李邦翼等從大國出來馳啓> 기록이 가장 풍부하고 상세하다. 일자별로 경과한 장소, 그리고 만난 사람 및 겪은 일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적어도 송환 문제가 결정되는 시점인 1797년 1월 5일까지의 기록은 일정과 사건 기록이 매우 촘촘하게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다만 송환이 결정된 이후의 66일과 귀로의 과정은 장계에서 비교적 중요성이 덜한 때문인지 다소 느슨하게 정리되고 있다. 이는 이 자료가 국가 간에 표류인의 처우와 송환과정이라는 외교적 문제와 관련된 기록이라는 점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송환 결정 이후의 내용은 외교적으로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李邦翼 일행이 표류의 과정에서 중국의 각 지역 관아로부터 받은 처우와 귀환 이후 최종 소지품의 구체적 내용들을 세부적 품목까지 제시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書李邦翼事>는 기억에 의존해 정리된 이방익의 기록에 아쉬움을 느낀¹⁵⁾ 정조의 명에 의해 연암 박지원이 작성한 것이다. 연암은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고증하여 이방익이 아뢴 표류 체험에서 언급된 지명과 역사, 문화와 풍속 등의 내용을 매우 상세하고 풍부하게 보완하여 제시하

15) 가사의 내용 정리에서 * 표시한 부분은 다른 기록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별도로 제시한 것이다.

16) 상계서 특별히 방익을 불러 보고 지나온 산천과 풍속을 하문하면서 사관(史官)에게 명하여 그 일을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배를 같이 탄 8명 가운데 방익만이 문자를 알기는 하였으나, 겨우 노정(路程)만을 기록해 놓았을 뿐이요, 또 기억을 더듬어 입으로 아뢴 것도 왕왕 차서(次序)를 잃었습니다. (박지원, <書李邦翼事>, 『燕巖集』 권6, 별집).

고 있다. 사실 여기서 11차례에 걸쳐 언급된 上奏의 내용은 인상적인 경험을 토대로 제시하고 있을 뿐 표류 체험은 상대적으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연암 역시 이 부분보다는 上奏에서 언급된 내용에 백과사전적 지식을 주석처럼 보태는 데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자료에서 더욱 중요한 부분은 李邦翼의 上奏보다 燕巖의 주석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사 <표해가>의 경우는 대체적인 표류 체험의 사실 관계에 있어서는 허구가 첨가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일정과 체험의 내용 및 순서에 있어서는 다소의 착종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표류 이후 큰 비와 배에 뛰어난 고기로 기갈과 허기를 해결했던 감격적인 체험이 『일성록』의 날짜와 차이를 보인다는가,¹⁷⁾ 정사년(1797) 1월 4일에 하문부에 도착한 내용 뒤에 27일 복건성 천주부 등을 경과하는 내용이 배치되어 있어서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표류 체험의 과정에서 새롭게 목격한 이국적 문물과 풍속에 경이와 호기심을 보이는 내용 등은 다른 자료에서는 볼 수 없는 가사만의 흥미로운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세 자료가 텍스트의 성격상 세부적으로는 내용상의 차이를 노출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의 대체적 흐름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좀 더 알기 쉽게 그림을 통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7) 『일성록』에서는 큰 비는 9월 26일, 고기 획득은 10월 4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가사에 서는 큰 비로 기갈을 해소한 내용은 5,6일간의 표류 경과 이전으로 되어 있고, 고기 획득 체험은 5,6일 뒤로 되어 있어 대략 전자는 9월 20일, 후자는 9월 25,26일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림1) 중국 지도

[표1]에 제시된 여정을 [그림1]의 지도에 따라 확인해 보면 이방익의 여정은 제주→북건성(팽호부)→대만→북건성→절강성→강소성→안휘성→강소성→산둥성→하북성→요녕성→조선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표류지인 팽호 섬에서 대만을 거쳐 육지로 이송되고, 조선에 가장 가까운 동북지역을 거쳐 본국으로 송환되는 경로는 당대 중국에 표류한 조선인들의 일반적인 송환 경로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세 자료는 특히 역사나 지리 등의 문화적 텍스트로서 활용될 경우 서로의 오류나 빈 공간을 채워나가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가사 <표해가>를 문체, 서정, 수사 등의 순수한 문학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는 한은 작품론적 접근에 있어서 표류 체험과 표류인으로서의 성격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런 면에서 위 자료의 상호보완적 활용은 더욱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뒷장에서 논의될 내용 역시 <표해가>의 문화사적 의미를 살펴보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 표류 체험의 양상과 의미

1) 표해 체험, 표류인으로서의 자기 발견

<표해가>의 작품론적 독해에 있어서 후속 연구에 유의미한 성과를 제시한 논의로는 정재호¹⁸⁾와 김윤희¹⁹⁾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전자의 논의는 작품의 구조와 전개 과정 및 서술상의 특성을 논의함으로써 이 작품의 문학적 위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단서를 제공했다면, 후자의 논의는 텍스트의 형성 배경과 문학적 특질을 함께 논증함으로써 이 작품의 미학적 성취가 일정한 역사 문화적 배경에서 배태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총론적인 차원에서 작품이 갖는 성격이나 텍스트 평가에 있어서는 필자 역시 이러한 선행 연구와 같은 입장에 있다. 다만 이 글에서는 앞선 논의에서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논의된 작자의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표해가>에서 작자는 ‘표해 체험’의 시작과 진행의 과정에서 정서적인 측면이나 이성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된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목적이 개재된 기행 또는 사행 문학과 구별되는 차이가 여기서 나타난다. 즉 목적이 전제된 여행 문학은 여행자로서 경험하는 외부 세계의 면모를 형상화하고 그에 대한 인식을 일관되게 드러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준비된 여행에서 체험이 갖는 의미는 간접적으로 학습한 지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거나, 지식과 체험의 간극을 통해 새로운 인식의 확장을 이뤄나가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표해가>의 문제 상황은 그 여행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표해 상황에서 출발한다는 점에 있다. 이 글에

18) 정재호, 『이방익의 <표해가>』, 『한국 가사문학의 이해』, 고려대출판부, 1998, 413~432면.

19) 김윤희, 『<표해가>의 형상화 양상과 문학사적 의의』, 『고전문학연구』 34, 한국고전학회, 2008, 35~60면.

서는 이를 ‘표류인으로서의 자기 발견’과 ‘국제인으로서의 자기 변화’라는 관점에서 다루고자 한다. 후자는 다음 장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전자의 논의부터 시작해 보자.

<표해가>의 내용을 살펴보는 데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은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이것이 계획되고 의도된 여행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닥친 표해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체험이라는 점이다.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과 실존적 위기 속에서 작자는 세계에 대한 이해나 발견보다 당장에 맞닥뜨린 현실에 대응해 나가는 자신의 실존적 육체를 확인하게 된다.

[2] 죽기는 自分하나 飢渴은 무삼 일고 明天이 感動하샤 大雨를 나리시매 돛대 안고 우러러서 落水를 먹음으니 渴한 것은 鎮定하나 입에서 성에 나네. 밧그면 낮이런가 어두으면 밤이런가. 五六日 지낸 後에 遠遠히 바라보니 東南間 三大島가 隱隱히 소사났다. 日本人가 짐작하야 船具를 補緝하니 무삼 일로 바람 形勢 또다시 變하고 그 섬을 버서나니 다시 못보리로다. 大洋에 飄飄하야 물결에 浮沈하니 하늘을 부르즈져 죽기만 바라더니, 船板을 치는 소래 귀가에 들니거늘 물결인가 疑心하야 蒼黃이 나가 보니 자 넘은 검은 고기 舟中에 뛰어든다. 生으로 토막 잘나 八人이 논하 먹고 頃刻에 끈을 목숨 힘입어 保全하니 皇天의 주신 海神의 도움인가. 이 고기 아니러면 우리 엇지 살었스리.²⁰⁾

앞선 장면에서 작자는 갑작스런 풍랑으로 인해 표류 상황에 놓이게 되자 체념하며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표류인으로서의 두려움을 과잉되게 노출한다.²¹⁾ 그런데 飢渴과 같은 신체적 고난에 직면하자 작자는 신분이나 체면을 벗어던지고 생존을 위해 고투한다. 작자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20) <47. 漂海歌(표해가)>, 이용기 편, 『樂府 上』, 고려대 소장.

21) “나는 새 아니어니 엇지 살기 바라리오……슬프다 무삼 罪로 하(下)直 업은 離別인 고.” (<47. 漂海歌(표해가)>, 이용기 편, 『樂府 上』, 고려대 소장).

입에서 성애가 돋을 정도로 차가운 빗물을 “뒹대 안고 우리러서 落水를 먹음으”며,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배에 뛰어들어 고기를 “生으로 토막 잘나” 먹는다. 이 장면에서 대대로 武人을 지낸 忠壯將으로서의 작자의 위의를 찾기는 어렵다. 비슷한 표류의 상황에 있었던 조선전기 崔溥는 李邦翼의 경우와 사뭇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최부는 표해의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는 동행자들을 단속하며 매우 이성적인 태도로 표류의 위기에 대응해나갔다. 최부는 체념하며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진정시키며 엄숙하게 하늘에 기도하였으며,²²⁾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서두르는 사람들을 진정시키기도 하였다.²³⁾ 이복규는 이러한 최부의 면모에 대해 “성리학적이거나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남의 생명을 살리고,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에는 하늘에 기도하기도 했던 사대부의 또 다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²⁴⁾ 최부의 경우 표해 체험의 과정에서 자아의 별다른 변화를 겪지 않았다면, 李邦翼은 표해 체험을 통해 본인도 미처 알지 못했던 본능적 자아의 실체를 만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작자의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행동은 표해의 상황에서 벗어나 구조된 이후에도 지속된다.

[3] 夕景은 慘淡하고 精神은 昏迷하니 世上인 듯 九天인 듯 해음 엮는 눈

22) “저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오직 충효우애를 마음먹었으며, 마음을 속이거나 모함이 없고, 원수나 원한을 산 적이 없고, 내 손으로 살해한 적도 없으니, 비록 하늘은 높지만 실로 굶어 살피시는 바입니다…” (【윤1월 초5일】 대양 중에 표류하다. 최부, 서인범·주성지 옮김, 『표해록』, 한길사, 2004, 57~58면).

23) “굶주림이 극도에 이르면 오장이 붙어버리는데, 만약 갑자기 먹으면 배부른 즉시 죽음을 면치 못한다. 차라리 먼저 미음을 끓여 마신 다음 죽을 쑤어 먹는 것이 나으니 적당히 먹었을 때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 (【윤1월 11일】 대양 중에 표류하다. 최부, 서인범·주성지 옮김, 『표해록』, 한길사, 2004, 71면).

24) 이복규, 「최부의 <표해록>에 대한 두 가지 의문」, 『고시가연구』 22, 한국고시가문화회, 2008.

물이라. 한 食頃 지낸 後여 水伯이 오고나. 네 비록 지저귀나 語音相通 못하리라. 나는 비록 짐작하나 저 七人은 모르고서 風浪에 놀넨 魂魄 오히려 未定하야 저런 人物 또 맞나니 우리 死生 모를 배라. 慰勞하야 내 이르되 丁未歲 勅行時에 내 그째 武兼이라.6) 侍衛에 드렸더니 中國人의 衣服制度 저러하데 念慮 마소. 붓드너니 쓰으너니 護衛하야 다려가니 五里 밧 瓦家大村7) 鷄犬牛馬 繁盛하다. 飢渴이 滋甚하니 엇지 하면 通情하리. 입 버리고 배 꾸드려 주린 形狀 나타내니 米飲으로 勸한 後에 저진 依服 말나우네. 恩慈한 저 情眷은8) 我國인들 더할손가.25)

가까스로 표해 상황을 벗어나 섬에 도착한 작자는 생사를 모를 정도로 정신의 혼미함을 느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나서 마치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물귀신처럼 바라보다가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며 중국인임을 짐작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마을로 인도된 작자는 극심한 기갈을 표현할 마땅한 의사소통의 방법이 없자 “입 버리고 배 꾸드려 주린 形狀 나타내”는 행동을 취한다. 섬사람들은 이러한 표류인들의 행동을 보고 미움을 제공하고 젖은 의복을 말려주며 온정적으로 대한다. 목표는 달성한 셈이지만 표류 체험에서 가장 생명을 위협하는 飢渴의 문제가 작자의 이성적 판단을 방해한 셈이다. 왜냐 하면 飢渴을 면하고 하루를 지낸 뒤 정신을 수습한 작자는 筆談을 통해서 이곳이 福建省 澎湖府임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해 체험으로 인한 극심한 육체적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작자는 필담을 활용하여 의사소통했을 것이다. 표해 체험이 가장 일차적으로는 작자 스스로 본능적 욕망의 실체를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다음으로 표류 체험의 과정에서 작자가 표류인으로서의 자기 상황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은 현지 관료의 問情을 접하게 되면서부터라고

25) <47. 漂海歌(표해 가)>, 이용기 편, 『樂府 上』, 고려대 소장.

할 수 있다.

[4] 그 官人 못자오되 어느 나라 사람이고 一盃酒로 慰勞한 後 저 七人은 다 보내고 나 혼자 부르거늘 또다시 드러가니 官人이 斂衽하고 무슨 말삼 하옵는고. 그대 비록 飢困하나 七人 동무 아니로다. 무삼 일로 漂流해야 이 짜에 이르신고. 眞情으로 못잡나니 隱諱 말미 엇더하고. 知鑑도 過人할사 그 일 길이 잇슬소냐. 朝鮮 末端에서 風景 짜라 배 닳다가 이 짜헤 오온 일을 細細히 告한 後에 故國에 도라감을 눈물로 懇請하니 官人이 이 말 듯고 酒饌 내여 待接하며 長揖하야 出送하니 큰 公廩로 가는구나.

여기서 표류인들의 問情에 나선 이는 馬宮大人이다. 問情官²⁶⁾인 대인이 표류인들의 국적 등 신원을 확인하고 표류의 계기나 과정을 확인하는 것은 향후 송환 여부와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공무적 절차에 해당한다. 問情의 과정에서 대인은 “眞情으로 못잡나니 隱諱 말미 엇더하고”라고 하여 매우 따뜻하고 정중한 태도로 대하되 거짓됨 없이 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²⁷⁾ 이러한 관료의 태도에 작자는 표류하게 된 경위와 과정

26) Daum 백과사전의 설명을 참조하여 정리하자면, 18세기 이후 조선에도 외국인이 표류하거나 이양선(異樣船)이 출몰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표류해온 외국인에게 조선의 예의와 풍속을 보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왕명으로 <이양선문정사례 異洋船問情事例>를 제정하고 연해의 제도에 반포한 후, 여기에 준해 이양선과 표류한 외국인의 사정을 알아보고 조치한 후 이에 따라 문정관이 제도로서 마련되었다고 한다. 문정관은 대체로 해당지역의 지방관이 겸임했으며, 대읍(大邑)에서는 역관(譯官)이 임명되기도 했다. 중국의 사정 역시 조선의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27) 問情官의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중국의 상대국인 조선의 사례가 참고될 만하다. 茶山の『牧民心書』권3『往役奉公』6조에 따르면 문정의 유의사항 5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 중 다섯째가 다음과 같다. “다섯째, 표류민과 대화할 때는 불쌍히 여기는 기색을 보이고, 음식을 제공할 때는 깨끗하고 신선한 것을 주어, 지성껏 후의로 대해 저들이 기뻐 돌아가 우리에게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하도록 해야 한다.”(정 민, 『표류선, 청하지 않은 손님-외국 선박의 조선 표류 관련기록 탐도』, 『한국한문학연구』 43, 한국한문학회, 2009, 96면).

을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그 과정에서 고국 송환을 눈물로 호소한다. 관인은 이러한 작자를 酒饌으로 위로하며 더 큰 관청으로 이송하게 된다. 문정 받는 상황에서 작자는 더욱 빠른 고국 송환을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취한다. 하나는 표류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빠짐없이 밝힘으로써 표류인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고국 송환의 간절한 마음을 온정에 호소하여 그 절차를 앞당기는 것이다. 이처럼 고국 송환이 결정되기까지 작자는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온정적인 태도²⁸⁾에서 자신이 표류인의 처지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이상에서처럼 표해 체험을 통해 <표해가>의 작자 李邦翼은 는 전과 다른 자아의 면모를 발견하게 된다. 즉 작자는 극한의 시련에 직면하여 반응하는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 본능적 자아를 발견하고 있으며, 표류인을 바라보는 타자의 시선을 통해 자신의 불안하고 위험한 처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는 표해 체험이 갖는 비계획적이고 비주도적인 성격이 때로는 숨겨진 자아를 드러내고, 자기 성찰을 이끌어내는 데에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2) 이국 체험, 국제인으로서의 자기 변화

이 장에서는 의도치 않은 표류 체험 속에서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인 중국을 통해 세계에 대한 인식을 형성해 가는 작자의 태도와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이러한 관점에서의 논의는 이미 사행문학의 연구에서는 매우 익숙한 접근 방법에 해당한다.²⁹⁾ 특히 이러한 논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중국을 바라보는 조선(조선인)의 중층적 시선과 태도이다. 명청 교체

28) 冬至밤 긴긴 새벽 景 업시 누어더니 오는 선배 그 뉘런고 藎 드러 慰勞한다.<47. 漂海歌(표해가)>, 이용기 편, 『樂府 上』, 고려대 소장.

29) 조규익, 『국문 사행록의 미학』, 역락, 2004. 이 대표적인 연구 성과라 할 수 있다.

이후 조선은 동아시아 문명권 내에서 화이관에 기초한 명분으로서의 대명 의리론 또는 斥淸崇明 의식을 내세우는데, 조선후기 사행가사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이러한 의식이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실제 여행 체험의 과정에서 작자들은 이러한 명분론적 시선을 넘어서는 매우 복잡하고 이중적인 의식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행문학에 나타난 이러한 의식의 혼재나 이율배반적 태도는 곧 대청인식의 변화를 드러내는 징후로 독해되어 왔다. 그런데 李邦翼의 <표해가>는 적어도 중국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중충적 태도를 노출하기보다는 일관된 태도를 드러낸다. 유정선은 중국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국 체험의 내용이 <표해가>의 중심이며, 그 이유를 보수적인 反淸意識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찾고 있다.³⁰⁾ 이러한 지적은 적어도 19세기 사행 문학과 대비되는 <표해가>의 위상을 짚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더욱 주목할 대목은 작자 李邦翼의 이국 체험이 목적성과 주도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感受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작품에서 제시된 이국의 문물과 풍속보다는 변화하는 작자의 태도를 읽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燕巖 朴趾源이 李邦翼의 표류 체험 기록의 오류를 고증을 통해 밝히고 주석을 덧붙인 사실³¹⁾을 보더라도, <표해가>의 가치는 진술된 내용의 자료적 가치보다는 작자의 태도와 인식에서 찾는 것이 더욱 의미 있을 것이다.

먼저 표류 체험에 대한 최종적인 작자의 인식은 <표해가>의 결말부에 나타나는데, 최대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작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5] 어화 이 내 몸이 遐鄉의 一賤夫로 海島中 죽을 목숨 天幸으로 다시

30) 유정선, 『18·19세기 기행가사 연구』, 역락, 2007, 82~85면.

31) 김문식, 「<서이방의사>에 나타난 박지원의 지리고증」, 『한국실학연구』 15, 한국실학학회, 2008, 193~225면.

사라, 天下大觀 古今遺蹟 歷歷히 다 보고서 故國에 生還하야 父母妻子 相對하고, 또 이날 天恩 입어 非分之職 하엿스니 運數도 奇異할사. 轉禍爲福 되엿도다. 이 벼슬 瓜滿하고 故土로 도라가서 父母게 孝養하며 지낸 實事 글 만들어 豪壯한 漂海光景 後進에게 니르과져. 天下에 危險한 일 지내노니 快하도다.³²⁾

작자는 자신의 표류 체험에 대해 ‘轉禍爲福’이라는 인식을 보여주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天下大觀 古今遺蹟 歷歷히 다 보”게 된 것이다. 또한 ‘豪壯한 漂海光景’이라는 표현에서도 표류 체험에 대한 자기 긍정의 태도가 나타난다. 여기에서 작자가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자신의 체험이 갖는 공적 기여의 가능성이 아니라 표류 체험으로 변화된 자기 자신이다. 평범한 조선의 지방 무관이었던 작자가 표류 체험을 통해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 곳곳을 돌아보고 오자 주변의 반응과 처우가 달라졌다. 작자는 이제 ‘조선인’에서 ‘국제인’³³⁾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표류 체험은 그 경험의 실질을 다소 구분해서 살필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좁은 의미의 표류 체험은 자신의 본능적 자아와 실존적 처지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 표류 체험이 송환에 대한 안정적 기대를 확보하게 되면서는 점차 이국 체험의 양상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작자가 국제인으로 거듭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6] 臺灣府가 어대매노. 五日만에 다닷거라. 船艙 左右에는 丹青한 漁艇이요 長江 上下에는 無數한 商船이라. 鐘鼓와 笙歌 소래 곳곳이서 밤 새오니 四月八日 觀燈인들 이갓홀 길 잇슬소냐. 탓던 船人 離別하고 層城門 달너드

32) <47. 漂海歌(표해가)>, 이용기 편, 『樂府 上』, 고려대 소장.

33) 여기서 국제인이 되기 위한 세계 체험의 범위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에 해당한다. 따라서 여기서 국제인은 근대적 의미의 개념이 아니라 동아시아 문명의 내부를 체험함으로써 세계와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 이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니 琉璃帳 水晶簾이 十里에 連하였다.³⁴⁾

평호부에서 대만부로 이송되면서 송환에 대한 기대가 커지자 작자는 점차 도시의 문물이나 경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인용된 부분은 대만부 항구의 풍경이다. 선창에는 빗갈 좋은 모양의 고깃배들이 들어서 있고 장강 상하로 수없이 많은 상선들의 행렬이 이어진다. 밤에도 이러한 행렬은 계속되어 초과일의 관등놀이를 연상시킬 만큼 변화한 모습을 보여준다. 조선에서 경험하지 못한 변화한 항구의 이국적인 장면이 작자의 의식에 깊이 각인되는 부분이다. 사회적 처지는 다르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로 문순득(1777~1847)의 표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³⁵⁾ 丁若銓(1758~1816)이 유배생활하던 우이도에 들어와 학문에 매진하던 이강희가 남긴 『柳菴叢書』에 홍어상인이었던 우이도 주민 문순득의 표류경험담이 수록되어 있다. 정약전은 이를 <표류시말>이란 제목으로 기록하였다. 문순득은 1801년(순조1) 12월 표류하여 오키나와, 필리핀, 중국 등을 떠돌다가 1805년 1월 8일에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장장 3년 2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겪은 경험 중 문순득은 국제적인 무역항의 모습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한다. 그 자신이 배를 타고 섬과 육지를 오가며 장사하던 상인이었기 때문에 상선이나 항구의 이국적 풍경은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중요한 문화적 정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李邦翼의 경우 대만 항구의 이국 체험은 중요하게 전달해야 할 문화적 정보로서보다는 조선과 중국의 사회경제적 차이를 인지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4) <47. 漂海歌(표해가)>, 이용기 편, 『樂府 上』, 고려대 소장.

35) 문순득과 관련된 본문의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혀둔다. 최성환, 「19세기초 문순득의 표류 경험과 그 영향」, 『지방사와 지방문화』 13권 1호, 역사문화학회, 2010, 253~305면.

[7] 錢塘水 푸른 물에 彩船을 매었는데 朝鮮人 護送旗가 蓮꽃 우에 번득인다. 皓齒丹脣 數三 美人 欣然이 나를 마자 纖纖玉手로 盞 드러 술 勸하니 鐵石肝腸 아니여니 엇지 아니 즐거리오. 岳陽樓 遠近道路 護行에게 무려 알고 順風에 돛을 다니 九百里가 瞬息이라. 採蓮하는 美人들은 雙雙이 往來하고, 고기 잡는 漁父들은 낙대 메고 내려오네. 鄂州 南城 十里 밧게 岳陽樓 놓았스니 十字閣 琉璃窓이 半空에 소사났다. 洞庭湖 七百里에 돛 달고 가는 배는 瀟湘江을 向하는가 彭湖로 가시는가. 巫山 十二峰을 손으로 指點하니 楚襄王 朝雲暮雨²⁶⁾ 눈 압혀 보았는 듯, 蒼梧山 점은 구름 시름으로 걸녔스니 二妃의 竹上窓淚 千古의 遺恨이라.²⁷⁾ 十里明沙 海棠花는 불근 안개 자자 잇고, 兩岸漁磯 紅桃花는 夕陽 漁父 내려오네. 杜工部의 遷謫愁는²⁸⁾ 古今에 머물넛고 李青蓮의²⁹⁾ 詩壇鐵椎 棟樑이³⁰⁾ 부서졌다. 이 江山 壯탄 말을 넷글에 드렸더니, 萬死餘生 이 내 몸이 오늘날 구경하니 惝恍인가 참이런가 羽化登仙 아니런가.³⁶⁾

고국으로의 송환이 본격화되자 작자는 한껏 船遊의 기쁨을 만끽한다. 여가서 故事와 관련된 주요 유적지들을 거쳐 지나면서 작자는 이미 학습을 통해 알고 있던 역사 문화적 지식을 직접 확인하게 된다. 표류 이후 긴 시간 동안 송환을 기다리던 작자는 고국으로의 귀환이 본격화되자 더욱 감격스러움을 느끼게 된다. “이 江山 壯탄 말을 넷글에 드렸더니, 萬死餘生 이 내 몸이 오늘날 구경하니 惝恍인가 참이런가 羽化登仙 아니런가.”라는 표현 속에는 송환 문제의 해결이 이국 체험의 즐거움과 직결되어 있다는 작자의 인식이 깔려 있다.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던 중국 문물의 진수를 직접 체험한 작자의 모습에서 국제인으로서 得意한 심적 태세를 읽을 수 있다. 사실 앞서 대만부 항구의 이국 체험이 모르고 있던 사실을 새롭게 발견한 것이라면, 전당강 선유 과정에서 겪은 이국의 풍물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들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작자는 이러한 체험들을 통해

36) <47. 漂海歌(표해가)>, 이용기 편, 『樂府 上』, 고려대 소장.

조선의 편벽된 지역에 살던 평범한 처지에서 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한 국제인으로서 변화된 것이다. 뜻하지 않은 표류를 통해 중국의 동남부인 대만과 팽호부에서 북쪽으로 절강성, 강소성, 안휘성, 산둥성, 하북성, 요녕성 등을 거치면서 작자는 중국 문물의 중심을 들여다 볼 수 있었으니, 변화된 작자를 대하는 주변의 반응과 처우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8] 온갖 구경 다 한 後에 本國으로 가라 하니 이 아니 즐거오냐. 우습이 절로 난다. 太平車 各各 타고 山海關 나와 보매 萬里長城 여기로다. 瀋陽으로 드러오니 鳳凰城將 나를 마자 江南 구경 하온 말슴 차례로 다 무른 後 欽歎不已 하는고나. 그대는 奇男子라. 이런 壯觀 하엿스니 本國에 도라감을 엿지 다시 근심하리. 이곳을 켜나오니 無人之境 七百里라. 鴨綠江 바라보고 護行官 離別한다.³⁷⁾

송환 그 자체도 기쁘지만 무엇보다 이국 체험을 통해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것이 작자는 더욱 기뻐다고 할 수 있다. 또한 江南의 문물 체험을 상세하게 묻는 鳳凰城將에게 작자는 비교적 상세하게 답변해 주었던 것 같다. 관료의 반응 역시 ‘欽歎不已’ 하면서 작자를 奇男子로 지칭하고, 아쉬움 없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작자의 처지에 선망을 보내고 있다. 여기서 瀋陽은 遼寧省의 성도이니 중국의 가장 동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조선의 국경에 가장 가까운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시가 변화하고 물산이 풍부한 江南의 문물은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강남의 지리적 특성 및 풍속과 강남인의 성향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남기고 있는 문헌으로는 최부의 『표해록』이 대표적이다.³⁸⁾ 중국 강남에 대한

37) <47. 漂海歌(표해가)>, 이용기 편, 『樂府 上』, 고려대 소장.

38) 서인범, 「조선 관인의 눈에 비친 중국의 강남-최부 <표해록>을 중심으로」, 『동국사학』 37, 동국사학회, 2002, 685~708면.

조선인의 관념은 바로 이 조선전기 『표해록』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변화한 도시, 수려한 산천, 풍부한 물산 등으로 평가되는 강남은 곧 중국의 문물을 상징하는 표상으로서 동아시아인들에게 이해된다.³⁹⁾ 표류의 고난과 함께 이러한 강남의 문물을 송환의 과정에서 살살이 경험하였으니, 중국의 관료부터 정조 같은 본국의 제왕에 이르기까지 작자를 각별하게 대했던 것이다.⁴⁰⁾

흔히 여행 문학의 작자들은 여행을 통해 지리, 지형, 문물 같은 가시적 정보와 풍속, 언어, 습속 같은 비가시적 정보를 획득한다. 이러한 여행 체험은 궁극적으로 작자의 세계관을 확장하는데 기여한다. 이는 전적으로 의도되고 계획된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표해가>는 이와 다른 배경 속에

39) ·“동남의 도회는 변화한 낙토로 산천은 수려하고 인가가 많다……항주는 절강에 연해 있는데 항상 동남의 한 도회지로 民은 많으며 물산이 풍부하고 산수가 맑고 이름답다.” (『형승』, 『항주부지』 권18. (서인범, 『조선 관인의 눈에 비친 중국의 강남-최부 <표해록>을 중심으로』, 『동국사학』 37, 동국사학회, 2002, 685~708면).에서 재인용. ·“무릇 백 리 사이에서도 풍속이 서로 다른데, 하물며 천하의 풍속은 어떻겠는가? 풍속을 한마디로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개 양자강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나누어 인가의 성쇠를 살펴보면, 곧 양자강 남쪽의 여러 부, 성과 현, 위소 가운데 변화하고 장대하고 화려한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진·순검사·천호소·채(寨)·역·포·이(里)·패 등 부근, 3,4리나 7,8리, 또는 10여 리, 많은 경우에는 20여 리 사이에 여염집이 가득하고, 시사(市肆, 시장)가 길 좌우에 늘어서 있고, 누대가 아주 가까이 서 있고, 배들이 서로 이어져 있었다. 주옥·금은·보패의 산물과 도량(稻梁)·염·철·어해(魚蟹, 게)의 풍부함, 양·염소·거위·오리·닭·돼지·당나귀·소의 축산물과 송·황(篋)·등(藤)·종(棕)·용안(龍眼)·여지(荔枝)·귤(橘)·유(柚)의 물산이 천하에서 으뜸이니, 옛날 사람이 강남을 아름다운 곳이라고 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6월 초4일』 압록강을 건너다. 최부, 서인범·주성지 옮김, 『표해록』, 한길사, 2004, 527면).

40) “제주(濟州) 사람 전 충장장(忠壯將) 이방익(李邦翼)이 표류하여 복건(福建)에 이르렀다가 육로를 따라 소주(蘇州)와 양주(楊州)를 거쳐 연경(燕京)에 이르렀다. 상이, 방익이 조관(朝官)으로서 이역에 표류하면서 만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서 돌아왔다고 하여 비변사 제조에게 명하여 불러다 위유(慰諭)하게 하고 전라도 중군(中軍)으로 임명하였다.” 『복건 등을 표류하다 돌아온 이방익을 위유하고 전라도 중군으로 임명하다』, 『正祖實錄』 권46, 정조 21년(丁巳, 1797) 윤6월 20일(戊午).

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표해가>의 작자는 의도치 않은 표류로 인해 이국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조선과 다른 중국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기도 하고,⁴¹⁾ 중국이 바라보는 조선의 위상을 새삼 확인하기도 한다.⁴²⁾ 또한 이러한 작자의 체험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때로는 찬탄과 경이를, 때로는 자부심을 안겨준다. 이 과정에서 작자 또한 자기 인식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를 국제인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4. <표해가>와 바다의 표상적 의미

앞선 논의에서는 가사의 생산 경위를 토대로 하여 내적 문맥에 담긴 작자의식을 살펴보는 데에 집중하였다면, 이 장에서는 표류 체험의 주요 공간인 바다가 작품 속에서 어떻게 표상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문학작품 속에서 특정 소재나 제재가 일정한 표상적 의미를 획득하는 것은 작가의 기획과 의도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기

41) · “鳳城縣 路文 노코 北門 밋게 나와 보니 丹青한 큰 碑閣이 漢昭烈의 遺蹟이라. 거기 잇는 저 무덤은 옛던 사람 무척난고. 石灰 싸하 封墳하고 墓上閣이 燦爛하다. 兩馬石 神道碑를 水石으로 삭엿스니 卿相인가 하엿더니 尋常한 民塚이라.” <47. 漂海歌(표해·이가)>, 이용기 편, 『樂府 上』, 고려대 소장.

· “黃津橋 지나와서 水軍府로 드리오니 泰山갓치 오는 거슨 멀리 보니 그 무엇고. 數百人이 메엿는데 불근 줄로 쓰으렀다. 돛대(대) 가튼 銘旌대는 龍頭鳳頭 燦爛하다. 帳 안에서 哭聲이오 가진 三絃 압헤 섰다. 無數한 茀輜 獨轎 喪家婢子 닳다 하네. 行喪하는 저 舉動은 瞻視가 고이하다.” <47. 漂海歌(표해·이가)>, 이용기 편, 『樂府 上』, 고려대 소장.

42) “丁巳正月 初四日에 廈門府에 드러가니 紫陽書院 네 글자를 黃金으로 메웠는데 甲紗帳 둘러치고 左右 翼廊 奢麗하다. 내 비록 區區하나 禮義之國 사람이라. 이 書院 지나가며 엇지 瞻拜 아니리오. 拜禮를 畢한 後에 殿 밋게 나와보니 數百 儒生 갈나 안저 酒饌으로 推讓한다.” <47. 漂海歌(표해·이가)>, 이용기 편, 『樂府 上』, 고려대 소장.

도 하지만, 경험과 인식의 축적적 과정 속에서 형성되기도 한다. 주지하다시피 조선후기 장편화된 가사들은 경험적 서사를 사실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시공간적 표현에 있어서도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묘사가 중심이 된다는 점을 말해준다.

<표해가>의 긴 내용에서 바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은 표해의 고난이 그려지는 다음 대목이다.

[9] 茫茫大海 潮水頭에 一葉漁艇 올라타니 李有甫 等 일곱 船人 차례로
조찾고나. 風帆을 놓히 달고 바람만 조차가니 遠山에 빗긴 달이 물 가운데
빛쬄였다. 靑紅錦緞 千萬匹을 匹匹이 헛썩린 듯 하늘인가 물빛인가 水天이
一色이라. 陶然히 醉한 後에 船板 치며 즐기더니 西北間 一陣狂風 忽然이
이러나니 泰山 갓흔 نوم흔 물결 하늘에 다랐고나. 舟中人이 慌忙하야 措手할
길 잇슬소나. 나는 새 아니어니 엇지 살기 바라리오. 밤은 漸漸 깊혀 가고
風浪은 더욱 甚다. 萬頃滄波 一葉船이 가이 업시 떠나가니 슬프다 무슨 罪로
하(下)直 업슨 離別인고. 一生一死는 自古로 例事로대 魚腹 속에 永葬함은
이 아니 冤痛한가. 父母妻子 우는 舉動 생각하면 목이 맨다. 죽기는 自分하나
3) 飢渴은 무삼 일고. 明天이 感動하샤 大雨를 나리시매 돛대 안고 우러러서
落水를 먹음으니 渴한 것은 鎮定하나 입에서 성에 나네. 밧그면 낮이런가 어
두으면 밤이런가. 五六日 지낸 後에 遠遠히 바라보니 東南間 三大島가 隱隱
히 소사났다. 日本인가 짐작하야 船具를 補緝하니 무삼 일로 바람 形勢 또다
시 變하는고. 그 섬을 버서나니 다시 못보리로다. 大洋에 飄飄하야 물결에
浮沈하니 하늘을 부르즈져 죽기만 바라더니, 船板을 치는 소래 귀가에 들니
거늘 물결인가 疑心하야 蒼黃이 나가 보니 자 넘은 검은 고기 舟中에 뛰어들
다. 生으로 토막 잘나 八人이 논하 먹고 頃刻에 끈을 목숨 힘 입어 保全하니
皇天의 주신 禬가 海神의 도움인가. 이 고기 아니라면 우리 엇지 살었스리.⁴³⁾

<표해가>의 바다 인식에 대해서는 이경엽이 선행 연구에서 포괄적으로

43) <47. 漂海歌(표해가)>, 이용기 편, 『樂府 上』, 고려대 소장.

살핀 바 있다.⁴⁴⁾ 조난의 현장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 작품에서 바다는 거대하고도 이채로운 공간, 긴장감과 공포감 및 생존에 대한 절실함이 내재된 공간 등 두려움과 호기심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표상된다. 멀리서 觀海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배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목격한 경험들을 그려낸 것이기에 묘사는 더욱 필진성을 획득한다. 그런데 이 漂海의 장면에서 바다를 표상하는 대상은 물로서의 ‘바다(海)’ 그 자체에만 국한되지는 않는 듯하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물로서의 바다 : 茫茫大海, 泰山 갓흔 넘흔 물결, 風浪, 萬頃蒼波, 大洋
- ② 이동 수단으로서의 배 : 一葉漁艇,⁴⁵⁾ 風帆, 一葉船
- ③ 기타 : 三大島, 섬, 고기, 海神

①처럼 물로서의 바다를 표상하는 시어들을 보면 한 없이 넓은 공간으로서의 바다(茫茫大海, 大洋)이거나, 깊고 위험한 공간으로서의 바다(泰山 갓흔 넘흔 물결, 風浪, 萬頃蒼波)를 표상한다. ②의 경우 이동수단으로서의 배는 바다 그 자체는 아니지만 바다 장면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바다를 표상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③은 바다를 구성하는 한 요소(三大島, 섬, 고기)로서 바다 전체를 연상하게 하거나, 신비로운 공간으로서의 바다(海神)를 표상하기도 한다. 이러한 제재들은 대상의 표면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표상 체계로서 기능하며, 별도의 은유나 비유적 의미를 내포하지는 않는다. 이로써 <표해가>의 바다는 넓고 깊으며, 때로는 바람 불고 위험하지만 미지의 신비를 안고 있는 공간으로서 그려진다. 특히 여기에 날씨,

44) 이경엽, 『고전문학에 나타난 해양 인식 태도』, 『도서문화』 20,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2002, 89~94면.

45) ‘一葉漁艇’ 같은 경우 고난의 정도를 드러내는 표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뛰어난 항해능력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한다.

바람, 물빛, 지형 등 시각과 청각 등의 감각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더해지면
서 바다는 고난의 공간으로서의 표상적 의미로 수렴되는 것이다.

사실 바다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세계의 근원과 결부되어 매우 신
비하거나 신성한 공간으로서 표상되었으며(연오랑세오녀, 해가 등), 현실
의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도피처나 유토피아를 표상하기도 하였다
(청산별곡). 때로는 천하나 세계 및 현실을 상징하기도 하고(四海, 苦海),
정서나 감정의 넓고 깊은 상태를 표상하기도 하였다(河海).

적어도 조선후기 이전의 ‘바다’는 그 원형적 이미지와 현실적 이미지 사
이에서 다양하게 변주되면서 폭넓은 표상적 의미를 가졌으나, 조선후기 이
후에는 은유나 비유에서 벗어남으로써 인간 경험에 어떻게 관여하는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 의미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후기의 수많은
가사와 산문 기록들에 나오는 바다의 표상적 의미는 그렇게 은유의 껍질을
벗고 현실과 맨살을 맞댄 가운데 구축된 것이다. 그런데 근대기에 오면 사
물의 표상적 의미는 작자들의 기획과 의도 속에서 새롭게 배치되고 형성되
는데, 바다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10] 네가 工夫하기를 조와하나냐. 그리하거든 가서 바다를 보아라. 學理
와 物性이 갓초아 잇지 아니한 것이 업난 自然物은 바다밧게 업스며. 네가
놀기를 조와하나냐. 그리하거든 가서 바다를 보아라. 天下에 偉大한 景, 莊嚴
한 景, 美麗한 景, 奇妙한 景, 平和의 景, 殺伐의 景, 拙工으로 그리게 하야도
名畫를 만드러내일 景, 駢士로 배풀게 하야도 雄文을 이루게 할 景 等이 가초
가초 잇서 海棠一枝가 秋雨를 뽀듯한 優美, 芙蓉萬朵가 春波에 간드러진
듯한 艷美, 나아가라 瀑布가 獅子吼를 지르면서 萬丈斷崖에 곤두서 찌러지
난 듯한 壯美, 凍氷寒雪이 堅閉密鎖한 흰칠한 별판에 양치한 모습, 蘚苔 한
포기 나지 안코 오직 赤松 한 줄기가 세한에 경절을 자랑하고 성난 듯한 嚴美,
……이 美 저 美 할 것 업시 가지지 아니한 것 업시 具備한 自然物은 바다밧
게 또 업나니라.⁴⁶⁾

[11] 大洋을 指揮하난 자는 貿易을 指揮하고 世界의 貿易을 指揮하난 자
는 世界의 財貨를 指揮하나니 世界의 財貨를 指揮함은 곧 世界總體를 指揮
함이오⁴⁷⁾

[10] 과 [11] 처럼 육당 최남선은 『소년』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바다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정한 표상적 의미를 함축시켜 왔다. [10] 에서 바다는 지성과 아름다움의 이상적 경지로 표상되고 있으며, [11] 에서 바다는 ‘근대적 국민국가의 팽창적 기획’⁴⁸⁾의 일환으로서 표상된 것이다. 민족 또는 국가의 의미를 회복하거나 확대하려는 국가적 상상력의 개입에 작자의 의도와 기획이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최남선에 대한 이러한 이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성무경은 최남선이 1914년 『청춘』 창간호에 <넋글 새맛>의 부제로 <표해가>를 실은 것에 대해 “표해가가 갖는 초반부, 시련을 극복하는 내용의 계몽성과 호방한 무인 기질의 작품성을 높이 평가하여 이 작품을 활자화한 듯싶다”라고 그 의도를 해석하였다⁴⁹⁾ 최남선은 우리가 어떠한 시각과 의도로 대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표상적 의미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상에서처럼 바다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인식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에 따라 바다의 표상적 의미는 다르게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구분해 보자면 상상적 이미지, 경험적 이미지, 기획된 이미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46) 최남선, 『嶠南鴻爪』(1909. 10.11. <소년>제2년 제9권~10권), 『육당 최남선 전집2-문학』, 역락, 2003, 300~301면.

47) 최남선, 『바다란 것은 이러한 것이오』, 소년 창간호, 37면.

48) 이종호, 『최남선의 지리(학)적 기획과 표상』, 『상허학보』 9권 3호, 상허학회, 2008, 275~303면.

49) 성무경, 『탐라거인 이방익의 <표해가>에 대한 연구』, 『탐라문화』 12,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2, 1~15면.

5. 결론

이 글에서는 기존의 연구 현황을 돌아보면서 연구사의 진전을 위해서 몇 가지 측면에서 다시금 점검하고 새롭게 다뤄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논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의 수집 및 정리가 여전히 현재진행 중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 텍스트의 실상 및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한글 본 가사 이본 4종과 역사서나 문집의 한문기록들의 차이점을 통해 자료들 간의 상호보완적 성격을 확인하였다. 특히 가장 일정이 상세한 『日省錄』을 토대로 한문기록인 <書李邦翼事>와 가사 <표해가>를 대조해 보면서 역사, 지리, 문학 정보를 담은 문화적 텍스트로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 활용의 긴요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작품 내부에서 나타나는 작자 의식을 변화의 측면에서 접근해 보았다. 여기서는 이를 ‘표해 체험, 표류인으로서의 자기 발견’과 ‘이국 체험, 국제인으로서의 자기 변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전자는 비계획적이고 비주도적인 표해 체험을 통해 숨겨진 자아를 발견하고 자기 성찰을 이끌어내는 작자의 식의 면모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후자는 안정적인 고국 송환이 확보된 이후 중국이라는 공간에 대한 이국체험의 양상과 함께 중국이 바라보는 조선(조선인)의 위상을 확인하면서 나타나는 자기 인식의 변화를 읽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셋째, 작품의 문화사적 의미와 관련하여 주요 공간인 바다의 표상적 의미가 어떠한 질서 속에서 구축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바다 관련 자료의 표상적 의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표해가의 문학사적 위상이 깊게 살피보기 위한 후속 논의를 예비하는 논의이다.

<표해가>를 비롯한 표류 체험의 문학에 대한 다학문적 접근이 이루어지면서 텍스트의 위상 또한 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가사 장

르로서의 작품 특성이나 작자 신분을 통해 본 작품 분석 등의 접근도 좀더
예각화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본고의 논의가 이러한 논의의 가능성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承政院日記』

『日省錄』

『正祖實錄』

朴趾源, <書李邦翼事>, 『燕巖集』 권6, 別集.

유정선, 『18·19세기 기행가사 연구』, 역락, 2007, 82~85면.

이용기 편, 정재호·김홍규·전경옥 주해, 『주해 악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2.

정재호, 『한국 가사문학의 이해』, 고려대출판부, 1998.

조규익, 『국문 사행록의 미학』, 역락, 2004.

조규익·최영호, 『해양문학을 찾아서』, 집문당, 1994.

최부, 서인범·주성지 옮김, 『표해록』, 한길사, 2004, 57~58면).

강전섭, 『이방익의 <표해가>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20, 한국언어문학회, 1981, 97~113면.

고석규, 『조선시기 표류 경험의 기록과 활용』, 『도서문화』 31, 목포대 도서관학연구원, 2008, 3~32면.

김문식, 『<서이방익사>에 나타난 박지원의 지리고증』, 『한국실학연구』 15, 한국실학회, 2008, 193~225면.

김윤희, 『조선 후기 사행가사의 세계 인식과 문학적 특질』,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10.

김윤희, 『<표해가>의 형상화 양상과 문학사적 의의』, 『고전문학연구』 34, 한국고전문학회, 2008, 35~60면.

서인범, 『조선 관인의 눈에 비친 중국의 강남-최부 <표해록>을 중심으로』, 『동국사학』 37, 동국사학회, 2002, 685~708면.

서인석, 『최부의 <표해록>과 사립과 관료의 중국 체험』, 『한국문화연구』 10,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6, 97~132면.

성무경, 『탐라거인 이방익의 <표해가>에 대한 연구』, 『탐라문화』 12,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2, 1~15면.

이경엽, 『고전문학에 나타난 해양 인식 태도』, 『도서문화』 20, 목포대 도서관학연구원, 2002, 89~94면.

이복규, 『최부의 <표해록>에 대한 두 가지 의문』, 『고시가연구』 22,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231~257면.

- 이종호, 「최남선의 지리(학)적 기획과 표상」, 『상허학보』 9권 3호, 상허학회, 2008, 275 ~303면.
- 전상욱, 「이방익 표류 사실에 대한 새로운 기록-서강대 소장 한글 <표해록>과 관련 자료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59, 국어국문학회, 2011, 121~146면.
- 정 민, 「표류선, 청하지 않은 손님-외국 선박의 조선 표류 관련기록 탐토」, 『한국한문학연구』 43, 한국한문학회, 2009, 81~108면.
- 최강현, 「표해가의 지은이를 살핌」, 『어문논집』 23, 민족어문학회, 1982, 67~74면.
- 최남선, 『嶠南鴻爪』(1909. 10.11. <소년>제2년 제9권~10권), 『육당 최남선 전집2-문학』, 역락, 2003, 300~301면.
- 최남선, 「바다란 것은 이러한 것이오」, 소년 창간호, 37면.
- 최두식, 「표해기록의 가사화 과정」, 『동양예학』 7, 동양예학회, 2002, 157~178면.
- 최성환, 「19세기초 문순득의 표류 경험과 그 영향」, 『지방사와 지방문화』 13권 1호, 역사문화학회, 2010, 253~305면.

Abstract

A Study on the aspects of the drift experience and presentational meaning of the sea in Lee-Bangik's Pyohaega

Paik, Sun-chul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aspects of the drift experience and presentational meaning of the sea in 's Gasa 'Pyohaega'. Pyohaega is the recording of drift, and also is text of cultural history. To study this text needs investigation of various surrounding material. Among the history books, is the Annals of the Chosun Dynasty and Royal secretariat of the Chosun Dynasty. In a collection of works, is Pyohaerok, Park-Jiwon's Seoleebangiksa, etc. This books are the complementary in relationship. The author's consciousness of Pyohaega have two aspects. One is the drift experience and self-discovery of drifting people. The other is foreign country experience and self change of international people. The former is unplanned and unproactive. The latter is curious about China and confident about Chosun. Last, The presentational meaning of the sea is made with variable meaning in literary works. The sea have imaginary images, experiential images, planning images. On the research of Gasa 'Pyohaega' is significance of Korean cultural history as well as significance of Korean Literary History. This paper institutes necessity of many-sided approaches and possibility of various interpretations.

Keywords : Pyohaega, drift experience, drifting people, foreign country experience, international people, sea, presentational meaning

백순철

소속 :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주소 : (712-714)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전화번호 : (직장 : 053-793-4305) (H.P. : 010-2742-8863)

전자우편 : urirangk4@hanmail.net

이 논문은 2012년 11월 14일 투고되어
2012년 12월 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2년 12월 11일 게재 확정됨.

